1980년 5월 그날의 막이 다시 오른다

뮤지컬 '광주' 세번째 시즌
15일~5월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다음달 14·15일 광주 공연
윤이건 역 가수 이지훈·배우 조휘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 제작된 뮤지컬 '광주'.

42년 전 5월 뜨거웠던 그날의 막이 다시 오른다.

뮤지컬 '광주'는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광주문화재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한 작품이다. 실제 5월 광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항쟁을 벌였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려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문화재단이 라이브(주), 극공작소 마방진과 함께 제작했으며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뮤지컬"이라는 평을 받았다.

뮤지컬 '광주'가 세 번째 시즌의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시즌은 뮤지컬계에서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지난 시즌 주연과 조연을 맡았던 배우들이 바뀌는 등 새롭게 라인업이 완성돼 기대감을 높인다.

제작사는 오는 15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뮤지컬 '광주'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공연은 오는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언급한대로 세 번 째를 맞은 시즌답게 이번에는 일부 주연과 조연 배우들이 바뀌었다. '광주' 서사의 중심에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자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야학교사 윤이건 역을 가수 이지훈, 배우 조휘가 맡는다.

이번 시즌은 무엇보다 작품이 광주 5·18을 다루는 소재라는 점에서 시민을 중심으로 좀 더 역할을 부각한다는 점에 방점이 놓여 있다. 초연 당시에는 광주의 아픈 상처를 민간에 침투한 편의대원인 박한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세 번째 시즌에는 배우 정동화와 신성민이 박한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이들은 임무를 위해 광주에 파견된 505부대 편의대원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참상을 목격하며 광주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되는 박한수를 연기한다.

윤이건 역 이지훈

윤이건 역 조휘

박한수 역 정동화

여자 메인에는 정화인 역에 문진아와 김나영 배우가 캐스팅됐다. 황사음악사 주인 정화인은 당시 가두방송을 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 이밖에 야학교사 문수경 역에 효은, 최지혜가 무대에 오르며 505부대 특무대장 허인구 역으로 박시원, 권동호가 출연한다.

아울러 천주교 사제인 '오활사제'역으로 이동준이 함께한다. 거리의 철학자 거리 천사 역에 김아영, 김은숙이 캐스팅됐으며 열혈 시민군 이기백 역에 주민진, 장민수가 무대에 선다.

이번 '광주'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뜨거운 투쟁, 열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투쟁가' 등 웅장한 멜로디가 더해져 그날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할 계획이다.

고선웅 연출은 "군부 정권에 대항하며 평화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그려낸 이야기는 한 명의 영웅 서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일궈낸 숭고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공연은 오는 5월 14일,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2021년 두 번째 시즌 공연은 작품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울 LG아트센터,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신작 실어…지역 문학세계 조명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발간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의 기관지 '광주문학'(102호)이 발간됐다.

이번 호는 '제34회 광주문학상' 수상자 특집과 지난 3월 말 수상자를 발표한 '제1회 박길무문학상' 수상자 특집을 비롯해 광주 지역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과 신작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광주지역 문학세계의 새로운 경향을 조명하자는 취지다.

또한 2021년 101호 작품에 대한 전숙(시), 윤삼현(아동), 박영덕(수필), 최문경(소설) 작가의 자세한 해설도 게재해 이를 토대로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책에는 지역문학인 교류 일환으로 대구문인협회 연혁과 행사, 추천 작가들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이밖에 책에는 광주문협 아동문학 분과 위원들을 다룬 특집도 수록됐으며 회원 명단과 명예회원, 2022 신입회원 명단을 권말에 실어 광주문협의 오늘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편집주간인 김정희 시인은 ""광주문학'은 지역문학을 대표하는 계간 문예지로 800여 광주문협 회원들을 위한 발표지면을 제공해왔다"며 "문학작품이 코로나 시대 정신적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온함을 주는 심리적 기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극복한 '일요일의 남자' 송해, 다시 "전국~! 노래자랑"

95세에 왕성한 현역 활동
'최고령 MC' 기네스 등재 추진

'일요일의 남자'로 통하는 원조 국민MC 송해(95·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났다.

송해는 10일 낮 12시 20분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금박 무늬가 있는 화사한 분홍색 재킷을 입고 나와 시청자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는 큰 소리로 오프닝 멘트인 "전국~"을 길게 외쳤고, 함께 MC를 보는 임수민 아나운서가 옆에서 "노래자랑"이라고 답했다.

원래 이 오프닝은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적 장면으로 송해와 관중들이 함께 만들어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작년 3월부터 현장 녹화가 중단되면서 아쉽게도 두 MC가 약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전국노래자랑'은 과거 방송분을 편집한 스페셜 방송으로 꾸려지고 있다.

송해는 격주에 한번 스튜디오 녹화를 통해 오프닝과 방송 중간중간 구수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이날은 연주에 맞춰 노래 '봄날은 간다' 한 소절을 멋들어지게 뽑으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안겼다.

송해는 올해 들어 건강 이상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시청자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특별히 앓고 있는 지병은 없지만, 고령인 탓에 몸 상태가 안 좋아 입퇴원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1월 9일부터 5주 동안 방송에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수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살이 빠진 야윈 얼굴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한동안 치료에 전념했다. 병원에 있는 것을 답답해해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방송분은 지난 2일 녹화한 분량이다.

측근에 따르면 녹화 당시 송해는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방송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걱정할 것에 마음이 쓰인 데다 방송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녹화를 진행했다고 했다.

코로나19를 앓으며 먹었던 약이 독해 위가 고생을 한 탓에 지금도 소화가 잘 안 돼 밥과 죽을 번갈아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대에만 서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펄펄 날아다닌다는 것이 측근과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요즘에도 송해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루빨리 무대에서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고 했다.

송해는 연예계 원조 '주당'으로 알려졌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 3~4년 전부터 서서히 줄여오다 1년여 전부터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 지하철,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며 건강관리를 한다는 송해는 여전히 운동 삼아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다.

오랜 시간 송해를 옆에서 지켜본 KBS 관계자는 "최근 녹화도 잘하셨고, 거동에도 큰 불편함은 없으시고, 정정하시다"라고 전했다.

KBS는 송해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1927년생 현역 방송인인 그는 'TV 음악 탤런트 쇼' 부문 최고령 진행자로 꼽힌다.

기네스 협회는 기초 검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 주 중 최종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고 KBS는 전했다.

송해는 1988년부터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며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